

총지종 제14대 통리원장 우승 종사 선출

다양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종무행정으로 종단화합

**제14대 통리원장
우승 종사**

법 명 : 우 승(愚勝)
속 명 : 황윤식(黃允式)
출 생 지 : 경북 영월
간 지 : 기묘생
행계종수 : 대법사(황미급)-1988. 4.11
정 사(청정지)-1992. 4. 1

대정사(말인지)-1997. 4. 1
종 사(출세간위)-2002. 4. 1

출가이력 :

- 1988. 4. 11 통리원 근무, 황미급 대
법사 종수
- 1989. 7. 27 제5대 중앙종회의 의원
- 1989. 9. 18 제석사 주교
- 1990. 11. 15 전당건설위원
- 1991. 9. 15 인사위원회 위원
- 1993. 3. 25 전당건설위원
- 1993. 6. 26 제6대 중앙종회의 의원
- 1993. 8. 26 중앙종회의 부의장, 인
사위원회 위원
- 1994. 3. 25 전당건설위원
- 1995. 3. 1 대구경북교구 총무
- 1997. 6. 26 제7대 중앙종회의 의원
- 1997. 10. 14 전당건설위원(現)
- 2002. 2. 1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원의원(現)
- 2002. 4. 10 국광사 주교(現)

총지종은 2월 27일 오후 2시 통리원
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우승종사를
제14대 통리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우승종사는 세수 66세로 경북 영월에
서 출생하여 어릴적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수행하여 왔으며 총지종에 입교하
여 제석사 주교, 중앙종회의 부의장, 인
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구
경북교구장, 전당건설위원, 국광사주교
로 재임하고 있다.
우승종사는 통리원장 당선 인사말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승단

전체가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협동하고 화합이 형성될 때 종단발전이
이룩되기 때문에 각자 화합을 위해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종무행
정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한 행정, 법집
행의 일관성, 전 승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통리원 각 부장급 인사는 3월
월초불공이 끝나는 3월 중순경 단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인교구 지회 새로운 도약 지회장에 총지사 김은숙보살 선출

서울경인교구 지회는 2월 19일 신정
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임원 구성을 위
한 모임을 개최하여 지회장에 현 총지
사 신정회 회장인 김은숙 보살을 선출
하고 새로운 임원과 자문위원을 구성하
였다.
이날 회의는 전임회장인 민혜경 보살
의 퇴임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 활동이 저조한 지회
의 활성화 방안과 활동방향에 대한 세
부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였으며 새로
임 임원은 총무에 이인성각자, 이연수보
살, 자문위원에는 총지사의 정광행, 정
광, 김성민, 심지행보살, 관성사의 김호
민, 현정원, 민혜경보살, 실지사의 지심
정, 실천제보살이 선출되었다.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전승

종조탄신97주년 불사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종생제도와 불교종흥의 뜻을 전승할 것을 다짐하는 발원문
을 낭독하고 있다.

총지종은 1월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
롯하여 전국사원에서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원정 종조탄신 97주년 불사를
봉행하였다.
원정 종조는 1907년 1월 29일 경상남
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였
으며 속성은 일직 손씨요, 휘는 정우,
법호는 원정으로 품성이 영리하고 민첩
하고 불굴의 의지와 정의감으로 뛰어
난 기지와 고매하신 인격을 소유하신
분으로 일생동안 종생구제의 큰 서원을
세우시고 불퇴전의 의지로 정법체계의
백일정진에 드셨을 때 한 백수노인이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
화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오각성하여
교상학림에 착수하고 정통불교의 조직
과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와 사

종수법으로 정연한 교상과 사상의 기틀
을 확립한 총지종을 태동시켰다.
종조탄신 97주년을 기념하는 불사
에서 수상 종령은 "원정 종조님께서 인류
문명은 물질과 정신양면이 병진해야 이
상적이며 역사상 정신문명이 물질문명
을 앞질렀을 때 인류는 물질기근의 참

상에 신음해야 했고, 금세기에 들어 물
질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정신문명
을 앞지르게 되자. 인륜과 도덕을 비롯
한 인류의 정신생활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물질만능의 풍조로
탐, 진, 치는 날로 치성하여 바른 마음
을 침식하고 인간의 도리는 타락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악업은 태산처럼 쌓여
가는 때에 불교를 국교로 했던 고려국
을 끝으로 사라져버린 밀양! 그 밀양의
비밀만이 이 나라를 구출하고 이 민족
을 실의와 좌절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
는 확신과 열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교화하셨습니. 우리들은 종
조님께서 총지종을 창종한 참 뜻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긴다. 종생제도와 불교종
흥을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통리원과 법정원에서는 종조탄
신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종조님의 유품과 서적들을 전시하고 종
조님의 사상과 교상을 체득할 수 있는
종조기념관 건립과 학술세미나를 준비
하고 있다.

주비소리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도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법계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 향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이 된다
「법구경 약행품」중에서

"청정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

총지종은 지난 2월 20일 서울 총지사
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스승님 및
모든 교도보살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3년도 상반기 49일불공 입제불사를 실
시하였다.
49일불공은 원정 종조께서 밀교의 호
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
하여 실시하는 진호국가불공으로 총기4
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
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함께 5월
5일 월요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하
여 정진하기로 결정한 데서부터 시작되
었다. 49일 불공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된다.
원정 종조께서는 "49일불공 정진의 1
차적인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
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
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개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사함과 관
련된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 위한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
기'를 서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

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
다. 49일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
가 법신불의 당체법이나 공덕 일으키는
법문으로 받아들여 더욱 엄중하고
회개법을 세워서 49일을 잘 마쳐야 할
것이다. 49일을 완만하게 마쳐야 회향공
덕이 있게 된다. 이 진호국가불공은 가
급적 저역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
일 정성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
여 앉아 엄중해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상반기 49일 입제에 즈음하여 수상
종령은 "불교는 인연공덕의 힘으로 이
루어진 종교인만큼 모든 집착과 번뇌를
해탈하고 청정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
로 소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항
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비정신과 선업을 지어주 나쁜 인연의
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계행
을 잘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수행하며
정진하는 가운데 내증법이 이루어져 당
체법법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
에 원망심과 수원을 짓지 말고 49일동
안 용맹정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
다.
한편 상반기 49일불공은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49일동안 이루어진다.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
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
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
된 삶은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미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
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 총기 33년 2월 20일 ~ 총기 33년 4월 8일
장소 : 불교 총지종 전사원
대상 : 모든 불자 및 총지종 교도



사설

진호국가불사의 의의를 되새기며

금년 2월20일을 기해 본 종단의 모든 사원에서 일제히 진호국가 불사가 시작되어 49일 뒤인 4월8일 회향하게 된다. 본 종단은 창종 초기부터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 국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대보살을 강조해 왔다.

그 중에서도 진호국가불사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9 일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종단 전체가 참여하여 나라의 안 위와 조국통일, 그리고 재난발생과 산업발전을 염원한다. 이러한 예 는 여타 종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불사로서 우리 충지종만이 오 랫동안 종단의 전통으로서 창종 이래 끊임없이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호국사상은 빈번한 외침을 물리 치고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민족공공체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되어왔 다. 고려대장경의 조판을 통한 몽고군에 대한 항쟁이나 임진왜란 시 숭한 승병들의 호국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종단에서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진호국가 불사는 더욱 의미 있는 불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불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만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염원하 는 동시에 나라에 대한 은혜를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기(緣起)로써 이루어진 중생무진의 중생세계에서는 누구든 홀로 존재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라는 하나의 동아리 가 만들어지게 된다. 국가는 가족공동체와 더불어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안정되 지 못하고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지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심성이 타락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 훼손되었으며 수많은 인제들이 희생되었던 역사를 생 각하면 나라의 소중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우리는 큰 은혜 일수록 너무나 당연시하고 무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기나 물이 없는 삶이 상상도 할 수 없으면서도 그 은혜 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국가라는 것은 몇몇 정치인이 나 선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구성원 하나 하나가 나라를 위하고 그러한 마음이 큰 줄기가 되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좁은 소견과 이기심으로 나라를 해치는 일인 출도 모르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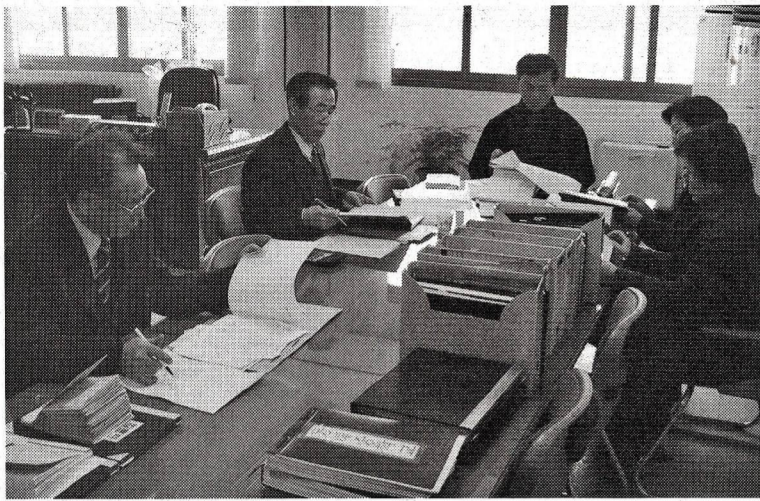
우리 충지종의 불자들은 이번 불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을 염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국가의 안정과 유지에 이바지할 수도, 그것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불자들이 앉아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 구성체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길이며 그리하여 이 땅에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단발전과 정책방향 제시”

충기32년 통리원, 유지재단 결산감사

사감원에서는 2월 16일부터 18일 까지 2박 3일동안 유지재단 및 통리원 각부 그리고 종단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충기32년도 결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충기32년도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속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 양성 계획, 승직자과 종무원의 복지 상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 등 중요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다.



충지종 사감위원들이 통리원 유지재단 충기32년도 결산 감사를 위해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람일장 범성 종사는 “최근 집계 된 교회회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과 각 부서별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과 회계의 취약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적극적, 창의적으로 수행 하는 승직자 및 종무원들을 적극 발 굴하고, 유지재단 및 통리원 예산은 교도들이 회사한 정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종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본래 목 적대로 집행처에 따라 집행되었는 지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통리원 및 각종 산하 단체의 각종 업무처리를 감사함으로써 종단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으며 사부대중으로부터는 신심과 환희심을 불러일으켜서 종단의 위상 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감사는 적발과 지도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감사행 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면 이번 기회를 통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감위원(범성, 지공, 지광, 법상인, 정법계)회에서는 이번 감 사를 통해 종단의 발전과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종단의 종무원 및 승직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방 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 다.

노인복지센터

작은 사랑의 실천 그 힘을 모아...

이른 아침부터 센터는 분주하 게 되어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관에서 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각기 다 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 복지사와의 일대일 관계에 국한 하여 생각하나, 사실 그러한 서 포장을 위해 자기 자리의동을 하여 맡겨진 일에 정성 을 다한다. 이어 진행 된 행사는 기념 식 후, 본 센터의 직원을 비롯 행사 를 후원한 여러 단 체의 직원들이 어

려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 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관에서 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각기 다 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 복지사와의 일대일 관계에 국한 하여 생각하나, 사실 그러한 서 포장을 위해 자기 자리의동을 하여 맡겨진 일에 정성 을 다한다. 이어 진행 된 행사는 기념 식 후, 본 센터의 직원을 비롯 행사 를 후원한 여러 단 체의 직원들이 어



황진수 (역삼제기노인복지센터 업무과장)

른신들에게 세배를 드려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 웃음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 는 어르신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여념이 없었다.

비스를 제공하기가 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바빠 뛰 며 기관과 연계해 야 하는 자원은 앞 서 묘사한 행사의 모습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비단 이러한 행 사 뿐 아니라 센터 의 일상에서도 개인은 물론, 각 종교단체나 기업체의 일원으로 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 사자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센터를

노인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주간보호사업, 재가복지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내방하여 봉사의 의 사를 표현하거나, 자 원봉사센터라는 자 치구의 단체를 통해, 또는 자신이 속한 종 교단체의 단원으로, 기업체의 일원으로 각기 그 경로는 다양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공감 대 속에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다. 특히, 기업들은 “자원봉사 축제”라는 자체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어느덧 사회전반에 봉사와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 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어르 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 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봉착하 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이 우리 가까이 있음.

이분들이 진정 보내신 감사의 메시지는 양손 가득 들고 가는 음식과 후원물품 때문만이 아니 라, 외롭고 쓸쓸하게 설을 보 내야하는 자신들의 따뜻한 설 맛을 위해 기꺼이 하루를 허 락한 봉사자들과 자신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후원물품을 준비 한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정성 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 센터 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시한 이 행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본 센터는 고령화 진전의 현 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주간보호사업, 재가복지 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이라 는 제한된 자원의 한계에 봉착

역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충지종은 동해중학교의 불우 한 학생과 불교적 심신을 고취시키 고자 불교적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 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새 일꾼양성

종립 동해중학교 34회 졸업식



법공 전 통리원장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에게 충지 종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는 2월 19일 내외귀빈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식은 개식사, 상장 수여, 이사 장 치사, 학교장 회고사, 통리원장 격려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로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상은 최장우 군, 학교장상은 신지홍, 배성현, 송 진우군, 부산시 사립중고등학교 학 교장상은 이태영군, 동창회장상은 김신용군이, 특별상으로 예능상은 심영락군의 2명, 기능상은 박해광군 의 1명, 총의상은 임관영군의 1명, 공로상은 정재환군이 수여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 수성 이사장은 “지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여 러분은 온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 의 역할을 펼쳐며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과 창의성, 도덕성을 길러야 한다. 또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하루 하루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필요 한 모든 것은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과 남을 타히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열린 마음 으로 즐겁게 생활할 것을 당부한 다.”고 말하였다.

또한 법공 통리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간의 결실에는 때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 고, 현재는 확실같이 날아오고, 과거 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 국은 시위에 당겨진 현실처럼 쓴 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 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간보다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간들 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미 래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화살 의 시위처럼 지나간 현재 지금 바로 이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소 중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충지종은 동해중학교의 불우 한 학생과 불교적 심신을 고취시키 고자 불교적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 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알림

- 충지종 제14대 통리원장에 우송 종사 선출
- 상반기 49일 불공을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사원에서 봉행함
- 서울경인교구 지회장에 총지사 김은숙 보살 선출
- 2월 1일 부산 정각사 주관의 경원정사 모친제사 열반함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5일까지

개천사 김동근 10,000	만보사 박정심 20,000	수인사 김봉기 2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심사 박옥란 20,000
개천사 김옥희 10,000	만보사 배정임 20,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지인사 무명씨 20,000
개천사 무명씨 20,000	만보사 이설강 10,000	시법사 지성 30,000	운천사 이형란 20,000	총지사 김호숙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실보사 방원순 20,000	지석사 우바이 100,000	총지사 이인성 40,000
개천사 박삼순 20,000	밀인사 배태임 1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총지사 최순전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김판석 100,000	통리원 인선 10,000
관성사 조정숙 10,000	밀인사 신동의 10,000	실보사 최상관 50,000	정각사 박운용 3,000	혜정사 무명씨 2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실보사 혜암 50,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혜정사 박종석 20,000
관음사 신막심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무명씨 5,000	정각사 송영애 10,000	혜정사 수중원 20,000
기로원 대관 10,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실지사 박미선 10,000	정각사 신연자 10,000	혜정사 자성신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정정희 10,000	실지사 상대성 6,000	정각사 신옥필 10,000	혜정사 정은선 2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실지사 이숙래 5,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혜정사 지성인 2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이란이 2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단음사 김경창 10,000	백월사 박은숙 10,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무명씨 5,000
단음사 묘심해 10,000	삼밀사 우바이 40,000	실지사 장도근 10,000	정각사 이수임 5,000	박남섭 30,000
단형사 공철봉 4,000	성화사 김한순 10,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배숙자 20,000
만보사 김정희 20,000	성화사 법공 50,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조춘자 10,000	안화자 20,000
만보사 박선희 20,000	성화사 우담바라 200,000	실지사 정우석 1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진관사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 불교 충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회원가입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기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신문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충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달의 설법문안

정신은 육체의 주인공

이 몸종이!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몸종이는 아무리 잘 먹고 아껴 주어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부드럽고 훌륭한 능리비단으로 몸을 감싸고 보호한다 하여도 사람의 목숨은 반드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몸 가까이 정신이 없으며 몸에 좋다고 하면 땀이나 부화되지 못한 병아리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무엇을 잘못 먹었다 싶으면 그만 거기에 매달려서 걱정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먹고 있지. 영양실조가 되어서 어지럽고 기운도 없으니 무엇을 먹어서 몸보신을 할까?’

그야말로 자기 몸을 위해 이 공리 저 공리 별공리를 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먹어서 영양실조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영양실조에 걸려 죽지는 않습니다.

이들처럼 정신이상자들은 일주일, 열흘씩 안 먹고 안 자도 끄떡이 없습니다. 기운도 날보다 몇 배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잤다 안 잤다.’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하루종일 굶었으니, 이리다가 쓰러지겠구나.’ ‘어제 한잠도 못 잤으니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그러나 일단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더 배가 고프고 더 피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병자들은 이런 분별심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며칠을 먹지 않아도 기운만 더 펴낼 것 같습니다.

거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처럼 감기 안 걸리고 병 안나는 이들

결립니다.

또한 인도의 갠지즈강물은 더럽고 탁한 구름물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갠지즈 강물은 성수(성스러운 물)로 여겨 모든 죄와 업장을 씻어 버리는 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수천년을 내려오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씻겨진다고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갠지즈강을 향해 물러옵니다.

특히 죽을 때가 된 사람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수장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구씩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갠지즈강가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하루종일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갠지즈 강물은 얼마나 더럽고 병균이 득실득실할 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물을 별까하게 마십니다. 수만리 먼 곳에서 그 물을 마시려고 찾아와서는 그 물을 온몸에 덮어쓰면서 기도하고 마시고, 돌아갈 때도 준비해

이렇듯 인간의 정신력이란 무서울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은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공인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굳건히 하여 견성성불하겠다는 신심과 원력을 지극히 가지면 비록 이 몸종이가 다소 부실하다 할 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몸이 부실해진 인과응보를 생각하면서 정신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육체를 길들여야 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 생존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날고 싶으면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수행자가 되려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 육체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은 무상한 것, 실체가 없는 것이며,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곧 세상과 인생이 무상하고 공하며 무아임을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괴로운 것이요, 공한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무아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뒤에야 올바로 발심이 되고 올바르게 수도할 수 있으며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수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인간의 정신력은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 이 세상은 무상한 것, 실체가 없는 것

도 드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갖 균이 득실득실한 쓰레기통을 뒤져서 더러운 음식찌꺼기를 먹고 살면 반드시 큰 병을 얻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지들은 쉬 배탈나는 일도 없고 위장병에 걸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배만 채우면 모든 오장육부가 저절로 왕성하고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도 얼어죽지는 커녕 감기도 안

들 갠지즈 강물에 자신의 시신을 묻는 것을 소원으로 여깁니다. 그래야만 신의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운 사람들은 갠지즈 강가에 와서 조용히 열매를 하며 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고나면 가족들이 시체를 베로 툄들 말아서 불에다 그을립니다. 겹대기만 그을린 다음에 돌이나 쇠 같은 것을 시체에 매달아서 갠지즈

강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수장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구씩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갠지즈강가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하루종일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갠지즈 강물은 얼마나 더럽고 병균이 득실득실할 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물을 별까하게 마십니다. 수만리 먼 곳에서 그 물을 마시려고 찾아와서는 그 물을 온몸에 덮어쓰면서 기도하고 마시고, 돌아갈 때도 준비해

생활속의 밀교

남' 자관을 통해 번뇌망상과 진심을 없앤다

우리 총지종의 육자의게 가운데 선정에 들어가는 첫 의례가 ‘남’ 자관(字觀)이다. 삼매에 드는 밀교의 관법(觀法) 중의 하나로 총지종의 입정단계(入定階)의 의례이다. ‘남’ 자는 일체 번뇌를 없애는 진언종자인데, 이를 관함으로써 일체의 번뇌망상을 태워 없애게 된다. 밀교의 경계인『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의하면, 이 종자를 머리에 띠어 리면서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번뇌망상을 소진시켜 없앤다는 생각으로 ‘남’ 자를 관하도록 하고 있다. 번뇌망상이

眞眞言)이라 하였다. ‘남’ 자가 법계진언(法界眞言)이므로 ‘육남’은 바로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이 된다. 법계를 정화하는 진언이므로 정법계진언인 것이다.

이 ‘남’ 자관은 진언염송에 들어가기 전에 잘 갖추어야 할 의례이다. ‘남’ 자를 관할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 속으로 조용히 ‘남’ 자를 묵송(默誦)한다.

‘남’ 자관을 관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결인(結印)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결인을 삼매야인(三昧耶印)이라 한다. 다른 말로

삼매수행의 입삼매(入三昧)는 바로 ‘남’ 자관 일상에서의 관법은 번뇌와 진심(眞心)을 없애

‘대삼매인(大三昧印)’, ‘대삼매야인(大三昧耶印)’, ‘삼매인(三昧印)’, 또 ‘정법계인(定法界印)’, ‘정법계인(定法界印)’, ‘선정인(禪定印)’이라고도 한다. ‘대삼매인(大三昧印)’을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손으로 맺는 결인은 대삼매인으로 두 손을 합장하듯 펴서 오른 손을 왼 손 위에 올려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고 배꼽아래의 단전에 갖다 놓는다. 이 수인은 능히 일체 광란의 잡다한 생각과 잡념들을 모두 소멸시킨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자.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남’ 자를 정수리에 두고 관을 행하도록 하자. 상대와 얘기를 하는 중이라도 ‘남’ 자를 새기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에도 ‘남’ 자를 잊지 말고 관을 행해 보자.

일상에서 번뇌와 진심(眞心)을 조금씩 누그러뜨릴 수 있고,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느긋함을 갖게 된다. 이를 반복해나갈 때 수행에 커다란 진전이 있게 된다. 나 자신이 없는 수행은 한낱 공명 불(空名佛)에 불과할 뿐이다.

(법경/법장원 연구원)

사라질 때 진정한 삼매에 든다는 가르침이다. 삼매수행의 입삼매(入三昧)는 바로 ‘남’ 자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남’ 자를 관하는 법은 먼저 나의 정수리 위에 둥근 보름달을 떠올리고, 그 다음 보름달 위에 ‘남’ 자를 살펴서 올려놓고 둥근 보름달과 ‘남’ 자를 함께 관(觀)하는 것이다. 보름달을 관하는 것을 일러 월륜관(月輪觀)이라고 한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보면, 「몸과 마음이 고요히 정(定)에 이르러 바로 청정법계의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른바 자신의 몸 정수리에 한 글자의 범서 ‘남’ 자가 있다고 관상을 하라. 이 글자엔 광명이 두루 편재하여 마치 밝은 진주처럼 혹은 밝은 만월(滿月)처럼 비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 ‘남’ 자에 대해 『금강정일체여래진실삼매대승현중대교왕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남’ 자를 관하여 내외(內外)의 번뇌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대일경』 권 제2 ‘보통진언품’에서 이 진언을 일러 법계진언(法

지상설법



정심사 진일심 전수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이웃은 멀리하라. 새가 숲 때에는 숲을 가려서 내려 앉듯이 사람이 배우려면 그 스승을 잘 택해야 한다.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쉬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학력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이웃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하은 까마귀 벗할 생각이 없는데 봉새인들 어찌 뱀새를 짝할 마음이 있겠는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흙덩이 풀은 천길이라도 올라가지만 잔디 속에 있는 나무는 석자를 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소인배는 그때마다 멀리하고,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착한 벗 찾아 마음 속의 가시털을 베어 버리

라.

그리하여 앞길에 활짝 트이면 걸음마다 그 자리가 뚫린 문이라라’

세상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뛰니뛰니 해도 대인관계가 아닐까 싶다. 사람끼리 어울리는 일로 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기도 한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나머지 생애를 포기하고 마는 것도 대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적인 종말이다.

민고 의지하면서 좋은 일이나 굴은 일이나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탁동하고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커다란 위안인요 의 지척이 아닐 수 없다. 항상 가까이는 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스승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친구란 귀한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도 없다. 전 인생의 과정에서

어리석은 무리를 멀리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무슨 일이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찬가를 부를 만한 자격자일 것이다.

결국로는 친구인 채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투하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친구가 이 세상 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기도 한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나머지 생애를 포기하고 마는 것도 대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적인 종말이다.

이런 속성은 우리들 마음 속에 들

은 좋은 향이리에 감물을 가득 담아서 갑니다. 그것을 자기 집에서 배대지처럼 모셔 놓고 식구들이 아플 때도 한 술갈씩 마시고, 발라줍니다.

위생학적으로 봐서 그 갠지즈 강물은 대장균이 득실득실하고 더럽고 침내 죽고나면 가족들이 시체를 베로 툄들 말아서 불에다 그을립니다. 겹대기만 그을린 다음에 돌이나 쇠 같은 것을 시체에 매달아서 갠지즈

양은 무의미한 것, 그것은 한낱 타성에 젖은 습관인요 중독상태다. 그래서 개선이 없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가리켜 마약이라고도 한다.

한국불교의 선각자인 고려의 목우사 보조스님은 처음 발심한 사람 등을 가르치는 글 ‘첫머리를 이와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처음 발심한 사람들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리석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친구의 영향이 어떤 것임을 경계한 가르침이다.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어질고 착한 사람과 가까이 사귀려는 것이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보면 〈선우(善友)라는 경전이 여럿이 나온다. 구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어질고 착한 친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운부 경전 45권에는 ‘반(半)이란 법문이 실려 있다. 한문 번역으로는 잡아함경 27권에 ‘선지식(善知識)으로 번역되었다. 선이란 선지식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반의가 행. 불행도 따지고 보면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나 남편 혹은 자녀와 부모를 가졌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

어 있는 특이요, 종생의 부끄러운 영역이다. 거듭거듭 태어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먼저 이런 환경에서 헤어나야 한다. 그 많은 불사와 혼해빠진 범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종생의 어두운 탈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이밖에 어떤 공덕을 바라서라면 그는 가짜 현실적인 삶에 개성이 없다면 신

자신도 모르게 웃이 젖듯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원한건 양건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튀어 넘어지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뒷보다 먼저 나쁜 벗을 멀리하고 대신

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외부적인 여건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 지라도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나 자녀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없다면 그 집안은 차디찬 의무만 남는 빈 거울이 되고 만다. 그와는 달리 비록 가진 것은 적더라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으로 다져진 가정이라면 늘 잔잔한 기쁨이 배어 나올 것이다.

(숫타니파타)에서 한 제자가 부처

님께 물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하였다.

유유상중.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계군은 계군끼리,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끼리, 말없는 사람은 말없는 사람끼리,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은 또한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끼리...

법구경에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내 허물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는 어진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배를 가리켜 주고 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덕이 되고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니까.

또한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끼리...

법구경에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내 허물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는 어진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배를 가리켜 주고 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덕이 되고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니까.

종조님의 유품 및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증흥을 위하여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 !!!
대성사의 창종정신과 대비원(大悲願)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종조기념관’ !!!
이제 그 회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조기념관에 전시할 유품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사오니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스승님이나 교도 여러분께서는 법장원이나 통리원 총무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자료 내용 -
- 유품류
- 종조께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계셨던 물건.
 - 사진류
- 종단관련 행사나 대외행사, 기타 개인적인 일로 찍었던 일체의 사진.
 - 종단의 교학이나 종조법설 및 기타 강공자료
- 종조님께서 강공하신 기타 행사시에 설하셨던 법문이나 강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
 - 서신류(書信類)
- 종조님과 왕래했던 서신류.
 - 기타
- 종조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연락처 : 불교총지종 법장원 · 통리원 총무부. 전화 (02) 552-1080~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⑫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미륵보살(彌勒菩薩)』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서방 무량수여래와 북방 천고뢰음 여래 사이의 남북간(南北間)에 자리잡고 있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북방의 천고뢰음여래와 동방 보당여래의 북동간(北東間)의 당우(堂宇)에 자리잡고 있는 미륵보살(彌勒菩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미륵보살은 북방의 천고뢰음여래 밑에서 깨달음에 들게 하는 보살이다. 즉 천상(天上)에 있는 자연의 소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천고뢰음여래를 도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천고뢰음여래의 인위(因位)로써 열반적정의 체득(體得)을 상징하고 있다. 종교적 이상경(理想境)을 나타내고 있다.

미륵보살은 산스크리트로 Maitreya 라고 팔리어로는 Metteya라 한다.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자씨보살(慈氏菩薩)이라 한다.

미륵보살은 현재 보살로서 정토(淨土)의 도솔천(兜率天)에서 천인(千人)을 위하여 설법하고 계시지만, 석존의 예언에 의하여 석존의 입멸 후 5억 4천만 년(인간의 오십육억 칠천만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



미륵에 대한 신앙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태평스러울 때 보다 전쟁과 기아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생고(民生苦)가 극에 달하였을 때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륵신앙은 불교가 들어온 초기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특히 삼국시대에 많이 신앙되었다. 삼국유사에 미륵신앙이 성행한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김제의 금산사나 익산의 미륵사지가 삼국시대 백제의 미륵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량이다. 그러나 고려시대로 넘어 오면서 선종(禪宗)이 크게 발달하여 미륵신앙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이 미륵보살을 밀교에서는 신질금강(新疾金剛)이라 한다. 신질금강이란 법륜(法輪)이 상당히 빨리 구르는 것을 상징한 밀호(密號)로서, 미륵보살이 빨리 나투시어 고통에 허덕이는 사바중생들을 모두 구제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금강정경』에 나오는 '발심전법륜보살(發心轉法輪菩薩)'은 미륵보살과 같은 몸이라고 한다.

삼매야형(三昧耶形)은 연화상조병(蓮華上妙瓶)으로 연화상신질인(蓮華上妙印)을 취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른손에 연꽃을 쥐고 그 연꽃 위에 물병을 올려둔 형태이다. 그래서 연화상조병이다. 연화상신질인은 연꽃 위의 물병으로 미혹(迷惑)과 장애(障礙)를 빨리 제거하여 보리(菩提)로 인도함을 나타낸 것이다. 연꽃 위의 병은 지수(智水), 즉 지혜의 물을 나타낸다.

조형(造形)은 살갗이 백색(白色)이고 오른손에 연꽃을 잡고

미래세에 성불하시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보살...

천고뢰음여래의 인위(因位)로써 열반적정의 체득을 상징

세상에 하생(下生)하여 화림원(華林園)의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成佛)할 보살로 알려져 있다. 장래 반드시 성불할 것을 약속받은 분이므로 당래불(當來佛)이라고도 하고 미래불(未來佛)이라고도 한다. 성불한 후에 3회에 걸쳐 설법하므로 사바중생이 모두 제도(濟度)하게 된다고 한다. 이 법회를 용화삼회(龍華三會)라 하기도 하고 미륵삼회(彌勒三會)라고도 한다. 하생(下生)하여 법을 설하고 나서는 부처님의 자격을 얻으므로 미륵불(彌勒佛)이라 칭하게 된다. 미래에 나투실 부처님이다. 현교 사찰에서는 미륵불(彌勒佛)을 중심으로 좌우에 법화림보살(法花林菩薩)과 대묘상보살(大妙相菩薩)을 협시보살로 하는 미륵삼존불(彌勒三尊佛)을 취하고 있다.

이 미륵보살은 석존의 업적을 두고 있는 보살이므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 부르기도 하고, 밀교에서는 현겁(賢劫) 천불(千佛) 가운데 제5불(佛)을 가리키는 보살존(菩薩尊)이기도 하다.

연화대(蓮花臺) 위에 삼매야형(三昧耶形)의 물병을 두고, 왼손은 가슴 앞에 세위 시무의(施無畏)의 인상(印相)을 취하고 있다. 또 머리의 보관(寶冠)에는 소탑(小塔)을 얹어 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소탑을 보탑(寶塔)이라고도 한다.

이 미륵보살은 석존의 유골(遺骨)인 사리(舍利)를 넣은 탑을 보관(寶冠)에 간직하고, 연화대(蓮花臺) 위의 물병에는 감로수를 담아 중생을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이는 곧 마(魔)를 굴복시켜 성도(成道)를 피하는 천고뢰음여래(天鼓雷音來)의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실현하는 모습이다.

미륵보살의 종자자(種子字)는 '기' (yu)이며, 진언은 '나막사다남 보다남 마하 유가 유가니 유게이시바리 간자리케이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대한 유가행자여! 유가행자여! 허심합장(虛心合掌)을 하는 자여! 사바하!'란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아제 아제 바라아제

집착이라는 병 그리고 나의 단상

요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여러 가지 굵직한 일거리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간다. 당연히 몸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늘 지쳐있는 상태여서 수면욕의 수치가 다른 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며칠 전에 끝없이 이어지는 상념 속을 헤매다 어렵사리 잠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럴 때는 으레 그렇듯이 밤새도록 동시상영으로 이어지는 꿈에 시달리다가 아침에도 눈을 뜨기 어려워 몸을 뒤척이며 꿈과 현실을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문틈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방 한구석을 비추고 그걸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던 어릴 적 그 이러한 모습처럼 희미한 내 의식사이로 명료하게 한 생각이 파고들었다.

'도대체 이미 지나간 일과 어젯밤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는 삶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나는 옆으로 누운 채 다시 눈을 감았다. 학부시절 인식론 수업시간의 모습이 떠올랐다. 산다는 것의 좌표를 정하기가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경험되어지는 세계와 우리의 경험자체가 얼마나 영성된 기초 위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믿음들 또한 얼마나 허술한지를 논의하면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나 자신의 진화를 다행으로 여겼던 그때의 잔잔한 감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 집착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없는 까닭에 세상일에 서로 얽고 얽히며 살아간다.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집착으로 인한 크고 작은 근심과 분노로 마음을 어지럽혀져 지낸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불자병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

집착으로 인한 크고 작은 근심과 분노가 형성
집착은 왜곡된 인식구조라는 근본 모순 때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오래된 옛일, 과거의 추억들이 어젯밤 꿈처럼, 동통하게만 느껴졌다. 분명 과거의 기억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릿하게 묶여져 있다.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 어느 편실로 꿈처럼 여겨진다. 경험사실과 생각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점이 문득 있는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무엇이 사실인지 생각인지 꿈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단지 기억력의 퇴화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것은 묘한 감정의 충돌이기도 했다. 내가 몸으로 부대끼며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얼마 후에는 기억으로만 있을 뿐이고 평소에 의식의 여지없이 확고해 보이던 내 삶의 근거지는 늘 해체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생겨난 공포와 박탈감과 상실감이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문득 가벼워져서 아무런 심리적인 억압과 갈등 없이 존재의 근원에 대해 눈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때, 즉 의식이 실존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있을 때 느껴

순히 감정조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정신현상의 이면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구조라는 근본 모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구조가 잘못된 판단을 낳고 그 판단이 수많은 감정을 일으킨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세계가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강하게 집착한다. 사실 말로는 제행무상을 읊조리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현실세계의 확고함에 대한 믿음이 깊이 박혀있다. 여기에 불자들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출근이라는 압박감에 다시 눈을 떴을 때 현실은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함으로 다가와 있었고 나의 의식은 경험된 것의 확실성을 의심해볼 겨를도 없이 벌써 그 위세에 주눅이 들어 슬그머니 사유의 끈을 놓아버렸다.

(김선미/인드라망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이달의 명상

"시시비비를 다 관계할 것 없고 산은 산 물은 물, 한가로운 데 마음이 있네. 극락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은들 무엇하리. 흰 구름 끊어진 곳에 청안이 나타나는 구나."

이 백가지 옳고 그른 시비를 모두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이 마음은 곧 중생심입니다. 마음 가운데 시비심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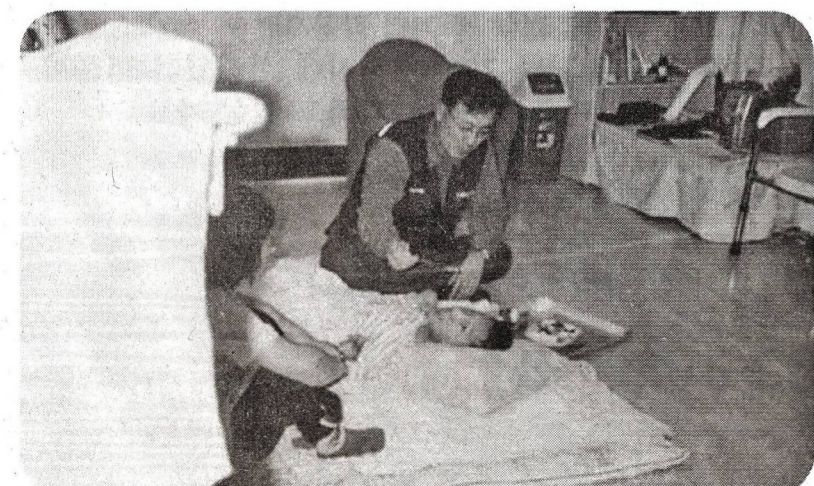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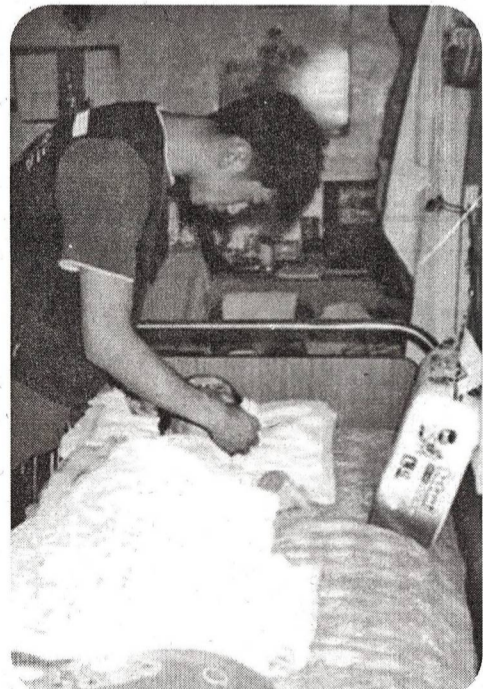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기운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맞으면 옳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릇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비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합당하고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시시비비를 떠나라

고, 설혹 시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없는 편안한 경계로 돌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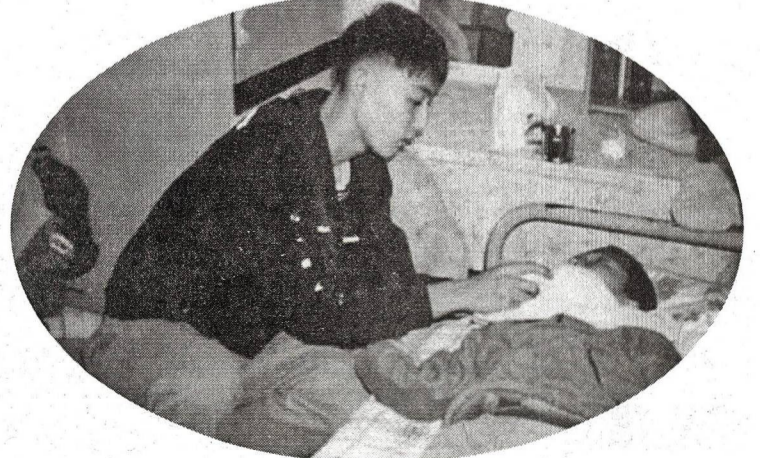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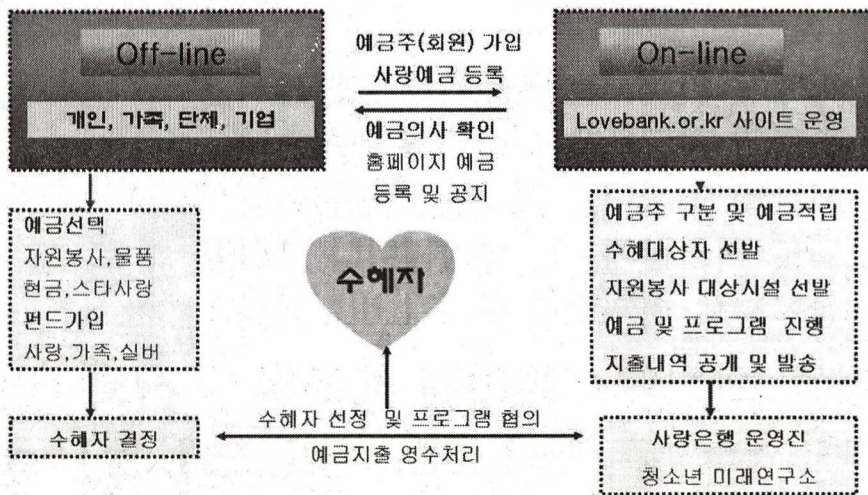
(편집자주)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총지논단

실천 공부 ⑧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국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남편과 아내〉

아내는 무진(無瞋)으로써 남편의 심장(心臟)안에 해인(海印)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남편은 희사(喜捨)로써 아내의 실천에 옳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아내가 마음으로 성을 내면 다른 이의 눈살을 지푸라게 되므로 부드러워야 한다. 이를 홀로 탄식하여 깨쳐서 남편을 바루되 무시로 진심(真心) 없이 참회하는 것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고, 남편은 이욕(利慾)과 용서(容恕)함을 누우쳐서 아내를 바루되 아낌없이 정공(淨供)하는 것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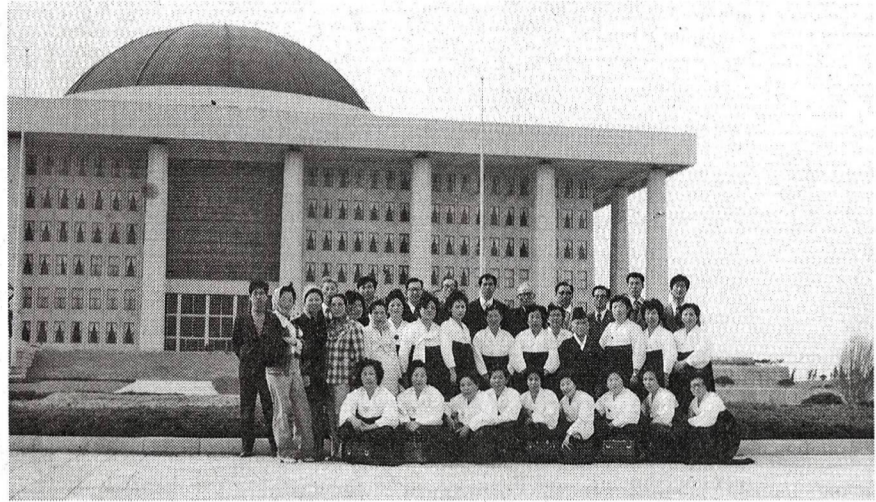
남편은 부인의 종교를 찬성하고 따르는데 아내는 남편을 자연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어머니가 심공(心工)하는 데 그 딸이 먼저 깨닫게 되므로 사위 제도(濟度)도 쉬워진다. 아들 제도하는 데는 오히려 그 딸의 덕(宅)만 갖지 못하고 그 딸의 덕을 제도하는 데는 그 장모만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의 제도는 머리의 제도에 있고 또한 장모의 제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하는 방편은 심공하는 집의 딸을 머리라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가졌던 이는 자연히 부모 또한 제도하게 되나이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여도 정신이 건강한 부부는 잘대로 갈일 수 없다. 그러나 서로 인정(人情) 없고 지조가 없어서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각기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이도 있다. 그 중에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므로 항상 자기의 나쁜 것을 다시 범하지 않게 법계 진각담에 참회하고 서원할 것이다. 예를 들게 되면 한번 부부가 되었다면 갈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니 소가(小家)나 집을 두고 사는 것은 나쁜 것이며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사는 것은 좋고 이혼하는 것은 나쁜 것이므로 각자가 세우려는 좋은 것만이 세상에 크게 세우갈 뿐 아니라 내가 나쁘게 되어 있는 것을 진각담에 항상 참회하고 서원하는 동시에 서로 좋은 것은 영향을 주고 반영(反映)되어서 결국 다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검은 머리가 희어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갈리지 않고 화순한 가운데 적은 집을 두지 않는 세상을 점점 세우 가게 되나이다.

봉건적 법은 대륙 가운데서 수입하고 위에서부터 받아서 아래로 전해 왔고 자

육적 법은 섬과 바다로 부터 실어 들어와서 하류계급에서 먼저 받아 상류계급에 전해간다. 일원 중도(一元 中道)는 땅과 사람을 주장 법칙하고 하늘과 신은 부속적이라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세우 왔으며 이원 공도(二元 公道)는 하늘을 법으로 하는 이는 하늘을 법으로 하고, 땅을 법으로 하는 이는 땅을 법으로 하고, 사

아내를 철학적 원리로 가르쳐야 한다. 진각담에서 가정의 도를 살피시되 안을 닦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복(福)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나이다.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의 법으로 하는 이는 땅을 법으로 하고, 사



스승은 대하는 자의 광명이 되는 삼세의 법

람을 법으로 삼는 이는 사람을 법으로 삼고 신을 법으로 삼는 이는 신을 법으로 삼아서 전공적으로 나누어서 세우게 되는 것만 다름지언정 선후 질서와 주관 객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원리(相對原理)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교는 아내가 먼저 믿고 깨쳐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이 주관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내증하기 위함이다. 다만 남편이 부인의 믿음에 만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아니나이다. 남편으로서도 자기가 믿고 이성을 깨쳐서

게 하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삼독(三毒)을 없애어서 남편의 심장(心臟)에 해인(海印)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남편은 오욕(汚辱)을 없애어서 아내의 이복에 옳은 모범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저 천지가 온화한 데 만물이 나고 화청한 데 만물이 이루어 지나니 음양(陰陽)이 배합한 데 만물이 생성하고 부부가 화순한 데 자손이 창성함은 진정한 이치이니 그러므로 혼인은 인간의 큰 일이요 만복(萬福)의 근원이다. 가정을 이

루고 국가를 건설하며 인류사회를 변혁케 함이 모두 혼인으로 기초하며 부부로서 시초가 되는 것이로다. 과거 무량겁 전에 석가 진각담에서 선해선인으로 계시실 때에 구리선녀로부터 꽃을 가져 연등불께 올리고 육행(六行)을 닦아 성도(成道)함을 맹세하는 동시에 미래에 부부되기를 발원하시었나이다.

〈스승〉

스승은 자교로 이루어야 하나이다. 인간생활의 고통을 실지 경난하지 않고 믿음없이 고(苦)와 락(樂)을 평등하게 알아 행복으로 사는 이는 드물고, 혹 평생 가운데 풍상을 경험한 후 고락을 평등하게 알아 살게 되나 곧 늙어서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해가 청년되며 청년이 늙어지고 늙은 이는 죽고 없어지니 곧 새로나는 사람을 바꾸어서 사바세계가 있어서 건립되어지니 인간생활에 고락을 깨닫고 사는 이가 어찌 많을 것이오. 더욱 사바중생은 물질이 점점 발달하여 가는 세상을 따라감에 마음이 어두워져 탐진치 삼독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운회에 법계 진각담은 슬피 여기시고 사망삼세에 인연따라 나타나서 중생을 구원하시되 팔만 해인과 법계 진각담이 각각 자기의 심장 안에 계시었음을 깨달으시고 모든 보살을 위하시 자기가 실천하므로써 법살하시니 듣는 자의 행복이 되며 대하는 자의 광명이 되고 삼세의 법이 되어 멸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승과 보살 신교도 ①〉

원래 보살의 스승은 학교 선생과 달라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고 화교(化敎)하는 것이 본분이다. 신교도(信敎徒)는 장사하고 공업하고 농사짓고 정치와 같은 여러가지 다른 직업을 가진다. 그러므로 결론을 지어서 말하면 스승은 육도만

행(六道萬行)을 다 실천해서 신교도와 그 가정 사회에다가 십분 백분 천분 만분의 하나를 무언 중에 화도(化度)하는 법계의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각담에서 결정하신 모든 계율을 사부(四部)와 칠중(七衆)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든 것이요 십중계(十重戒)로부터 사십팔 이백 오십 삼백 육십계를 다 중생이 책임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칠중은 각각 자기에게 해당하는 계율을 본분으로 삼아 행해서 중생에게 반영할 법계 책임을 가진 것이라고 알아야 하고, 중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행하게 될만한 법을 근기에 응해서 설할 뿐이나이다. 우리 보살회에서 이 법이 서계되면 실천 화도(實踐化度)하는 스승은 지위가 높아지고 실천화도하지 않는 스승은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스승의 실천화도가 많은 심인당을 신교도의 가정에 뻗쳐가는 행복이 많고 실천화도가 적은 심인당은 신교도의 가정에 뻗쳐가는 행복이 적이나. 법계 진각담에서 아무리 중생을 제도할 본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속(眞俗)을 통하고 법을 세우 오는 자가 없으면 진각담도 법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 화도법(化度法)을 세우지 못하고, 또 법이 없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보살회가 없으면 실천 화도하는 스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천 화도하는 스승이 없으면 신교도가 누구를 인연해서 모아들며 무엇을 인연해서 깨닫게 되리요. 그러므로 스승의 자격과 법을 세우지 않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법과 스승자격은 세우 있는데 교(敎)가 잘 되기 어려운 것이나이다.

신교도가 가족을 제도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데 스승이 같이 화도할 능력을 가져 있지 못하면 신교도의 가정에 원만한 행복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스승 자신은 이를 확실히 알고 항상 참회하여야 한다. (제곡 : 종학연구원)

조선화원장의 총지 동의 보감

봄철 건강관리 요령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겨울 내 움츠려 있던 인체도 오장육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즉 양기(陽氣)가 상승하고 발산하여 만물이 싹트고 생명력을 발휘하게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주는 신비로운 만큼 조화롭고 규칙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만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의 변화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크게 춘곤증과 피부알러지 및 피부건조증입니다. 춘곤증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등과 같은 어떤 질병의 이별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우리인체가 적응을 못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저하되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을 경험

하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일어나 가벼운 맨손체조나 조깅을 하고 직장에서도 2~3시간마다 긴장과 피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식사 후

또한 봄에는 건조한 공기와 대기중에 떠다니는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호흡기와 피부질환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경우 감기나 호흡기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에는 손과 발등 노출된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코나, 눈, 기관지, 피부 등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할 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과도한

가려움증 등의 피부이상과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이 많은 오후 2~4시사이의 외출을 삼가시고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우리 인체에 대해 변화하는 외부의 온도와 계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계절에 많이 나는 산과 들의 나무새순과 봄나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쑥이나 달래, 냉이, 씀바귀 등은 위장을 튼튼히 하고 식욕을 돋우어 여름철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키워 줍니다. 이 밖에 식물성단백질인 콩, 두부, 참기름, 들기름 등도 좋고 채소과일과 야채를 곁들여 매끼마다 식사를 하다면 이 보다 좋은 보약(補藥)은 없을 것입니다. 출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몸과 마음이 좀 더 희망차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갑신년(甲申年)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춘곤증은 환경의 변화에 우리인체가 적응을 못해 나타나는 증상 제철에 많이 나는 산과 들의 나무새순과 봄나물 등을 섭취로 예방

에는 가끔씩 실내보다는 밖으로 나가 15-20분 정도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는 것도 식후 나타나는 춘곤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20분 정도 낮잠을 청하는 것도 오후의 업무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나 잦은 목욕, 때수건 사용 등은 피부손상을 유발시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봄에는 겨울보다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겨울철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약해진 피부들이 더 강한 자극을 받게되므로 기미나 주근깨, 피부주름,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뎃),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우산은...

아주 멋진 우산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외출할 때마다 잊지 않고 우산을 챙겼다. 그러나 비가 내려도 우산을 펼 수가 없었다. 그 멋진 우산이 비에 젖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비에 젖는 게 나았다. 그날도 비를 맞으며 우산을 풀고 걸자니 아이 하나가 달려와 함께 쓰고 가자고 청했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사람한테 아이가 말했다. "우산은 활짝 펴 들고 비를 가리라고 있는 거예요."

- 이상희/시인

오늘

오늘은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는 산골짜기 웅덩이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 구상/시인

부지런히 일하라

대낮에는 마냥 잠자기가 좋아하고 밤에는 깨어 바라는 것 많으면 외롭고 어리석어 좋은 벗 없고 집안의 살림살이 다스릴 줄 모르네

이르다 늦다 핑계대며 일하기 싫어하고

축다 덩다 핑계로 더욱 게으름 피우니 하던 일은 하나도 끝맺지 못하고 또 다시 다 된 일도 망치고 마네.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어느 사업이고 안 될 것 없어 마침내 근심 걱정 없게 되리라.

- 『장아함경』중에서

스스로도 즐기고 남에게도 베풀라

넓은 들뜬에 못이 있어 맑고 시원하고 깨끗해도 그것을 즐겨쓰는 이 없으면 이내 그대로 말라 버리고 마네

이처럼 훌륭하고 값진 재물이 나쁜 사람이 지니게 되면 자신도 쓰지 못하거나, 남을 가엾이 여겨 주지도 못하며 부질없이 스스로 괴롭게 모으기만 하고 그렇게 모았다가는 스스로 잃고 마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즐기며 잘 쓸 줄을 알고 널리 보시해 공덕도 지으며 친척과 권속들에게도 보시하네

보시해야 할 곳에 맞게 보시하는 것 마치 소가 그 때를 거느림과 같으니 남에게 주고 스스로도 쓸 줄 알며 응당해야 할 것을 잃지 않으면 이치를 따라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서 복락을 누리리라.

- 『잡아함경』중에서

나도 한마디

아픔을 서로 위로하며....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교 두명이 괴한에 의해 꽃다운 목숨을 잃게 되고, 포천에서는 여중생이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기업 및 상점들은 불황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연일 울상을 짓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한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사회현상속에서 우리는 서로간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나의 업에 의해 이루어진 인연으로 나도 전생이나 후세에 연젠기는 삶의 고통속에서 신음하며 생활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상 선입을 지어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저장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서로간에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화해와 평화의 감정으로 화합된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들속에

서 부처님의 불국정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듯이 살법시 간에 보시의 공덕을 들었듯이 들은 대로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사회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김 정 순)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사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ija@hanmail.net

원정대성사의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26화~



〈불교 총지종 자매결연 지정병원〉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점목 협진

하나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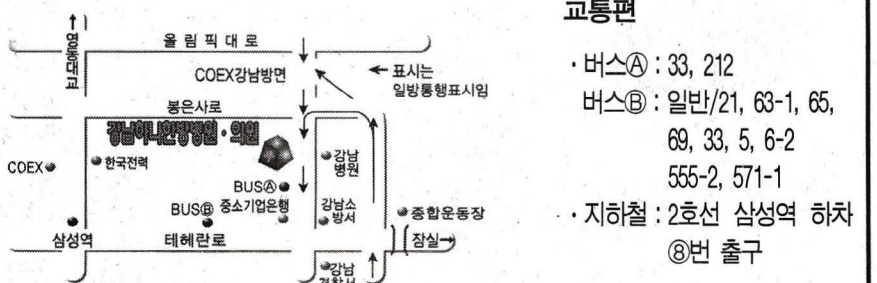
-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환병
-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가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 한방물리요법실 ○스포츠의학실
-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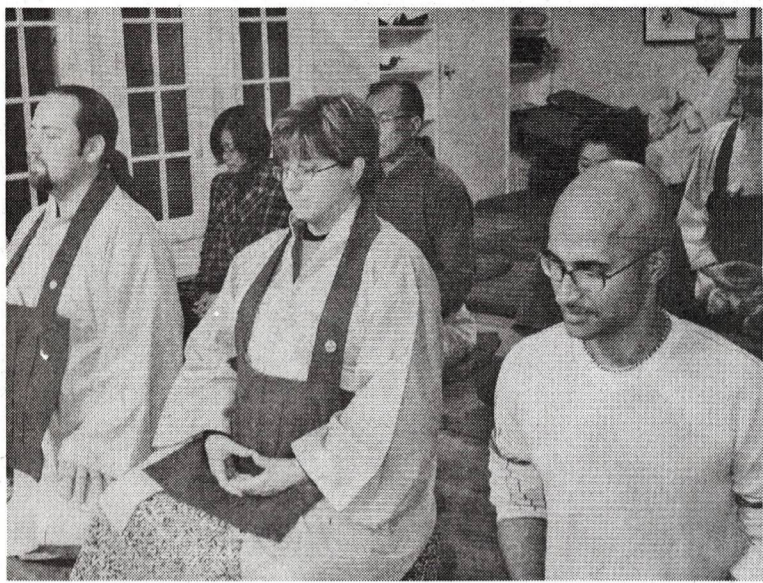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02)569-1011~4
FAX: (02)563-5577



교통편
· 버스A : 33, 212
· 버스B :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하차 ⑥번 출구

미국, 유럽에 불교신자 급증

명상수행 선센터, 선개발원 증가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 신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미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 불교의 확산은 불교국의 많은 고승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선센터가 물질문명의 대안으로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서구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타임지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명상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1천만명으로 10년 내 2배로 늘어나 미국인들에게 명상수행이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구대학의 진우기 교수는 "서구

의 종교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미국의 불교도는 4백만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서 그 수가 2배로 증가하고 선센터와 수행센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에서는 1백만인 불교도인들이 사찰재건 사업을 통해 불교재건 운동을 벌이고 있고 호주는 2001년 불교인구가 35만 명이 넘어 96년부터 5년간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구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물질문명이 발달할 수록 정신적인 황폐화가 증가하여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의 근원적

정각사 소원성취도량 우뚝

불공공덕으로 대학합격

총지종 정각사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고도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대학에 합격하여 소원성취도량으로 부산지역에서 그 유명세가 대단하다.

특히 서울대 공과대학에 합격한 김관석군의 아버지 김경수 각자와 어머니 황말순보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원당에 나와 지극정성으로 불공하였으며 이러한 공덕으로 대학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또한 최영수각자와 이은주보살의 아들 최정혁군은 부산대 사범학과, 문종두각자와 리성희보살의 딸 문성숙양은 청주교육대학, 이대현각자와 권운순보살의 아들 이흥훈군은 동국

대 법학과, 허행도각자와 서명자보살의 아들 허태영군은 경상대 식품공학부, 송옥명각자와 노기수보살의 딸 노현주양은 동아대 식품과학부에 합격하였다.

서울대에 자녀를 합격시킨 황말순보살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을 만나 지극정성으로 불공하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옹양정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신행체험 ⑧

부처님이 주신 보배



정순향 (화음사 교도)

이웃 친정 어머니는 기뻐서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 약이라면 시어머니께서 한약을 지어 오셨는데 그것을 다려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유산이 되고 말았다.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화창지옥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알게된 정사님께서는 "보살님 불공해서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는데 끝까지 불공해서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약을 먹고 탈을 뱌니까? 그렇게 진리가 약해서 아들을 얻었습니까?"하고 꾸짖으셨다. 나는 울면서 지성참회(至誠懺悔)를 했다.

전수님께서 "이미 업질러진 일이나 다시 불공을 잡아서 해보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낳으면 부모하고 합(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꼭 아들을 낳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했더니 옆에서 내말을 듣고 계시던 정사님께서 "보살님 워라카노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이것 저것 따질 처지나 입장이니까? 무조건 불공해서 낳으세요. 그러다 보니 나의 건강도 점

남편의 삼대독자로 아들이 없어 고민 부처님의 공덕으로 보배인 아들 얻음

점 나빠져 수술을 두 번이나 했지. "나의 자식에 대한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남편도 동창회에서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에 힘이 빠지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나에게 부처님은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보내 주셨다.

법정 정사님과 범지연 전수님이 새로 화음사로 부임해 오셨을 때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하였더니 스승님은 나의 고민을 다 들으시고 "보살님 부처님께 아들을 달라고 지심으로 열심히 불공해 보세요, 전에 있었던 사연에서도 열심히 불공을 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공해 보세요." 그 말씀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극 정성으로 열심히 불공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교사의 신분으로 매일 시간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퇴근 길에 매일 화음사에 들려 부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매달렸다.

49일 불공을 회향하고 두 번째 불공 3주되는 때에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해보니 기적같이 임신이 되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남편,

는 약이나 먹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불공해 보세요"하고 나무라셨다. 나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불공을 시작하였다.

몇 개월이 지난 뒤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 순간 부처님, 정사님, 전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고 일어났다. 산일이 되어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보니 아들이었다.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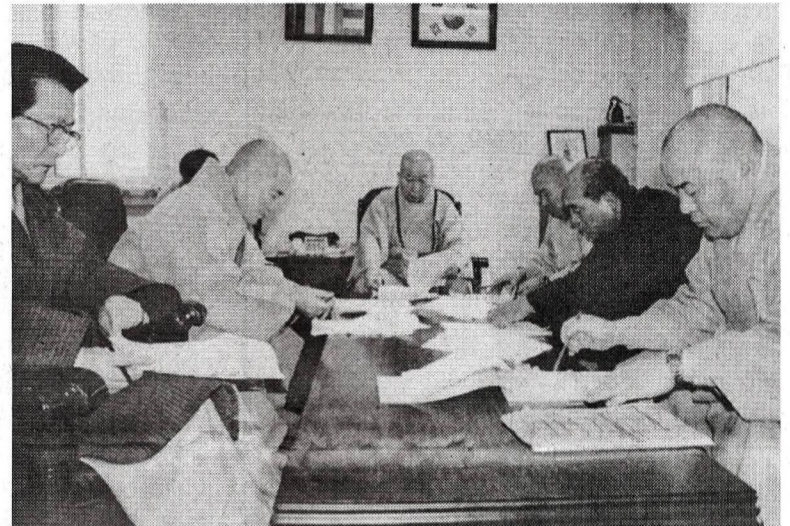
정사님께서서는 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나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요, 선물이란 뜻으로 아들 이름을 최원대로 지어 주셨다.

아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불공을 하기 위해 서원당에 나오면 정사님과 전수님께서선 원대 크는 것쯤 바라 하시면서 대견해 하신다.

부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보배인 우리 아들! 잘 키우며 부처님 은혜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한번 부처님, 정사님, 전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를 세계로"

한국불교 종단협 상임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스님)는 2월 11일 서울 수송동 종단협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주요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받고 신규회원가입을 한해의 사업방향을 결정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불교의 교류확대를 통한 세계진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불교도대회를 유지하고 삼국의 불교도대회를 세계인들이 참석하는 불교대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계종에서는 스리랑카에 조계마를 완공과 해외포교 활성화 위해 국제부의 인력보강과 부서 설치 및 영어판 경전번역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등도 해외포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불자 위상강화 불교여성 개발원 신년계획 발표

불교여성 개발원이 불교여성 국제연대 형성, 회보와 홈페이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나갔다고 다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회 회원 결성을 통한 조직강화, 여성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여성불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우선 여성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여성불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개발원의 소식을 담은 회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12월 준비호로 발간된 '우바이 예찬'에 이은 이번 회보는 정식으로 발간되는 창간호로서 격월간으로 발간되며, 내년부터는

역삼복지센터 정월대보름축제 소원빌기, 율놀이, 경단만들기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2월 6일 주간보호센터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새해 소망 기원 및 율놀이, 그리고 전통음식 만들기 등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분들은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맞이 소원 빌기"라는 코너에서 소원편지에 새해소망을 적고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차준공 조계종 17일 마애삼존불 제막식

조계종은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의 새 장을 열어가 한국불교역사문화회기념관 1차 준공 및 마애삼존불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관 입주기념 오색선 절단, 마애삼존불상 제막식, 총무원장 법장스님 인사말, 문화관광부 오지철 차관과 청와대 불자회 조윤제 회장의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관광부 오지철 차관은 축사에서 "불교 역사 기념관을 발판으로 조계종이 더 한층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에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도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인 조계사 경내에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으로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어온 불교전통문화의 이해와 체험공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 2002년 4월 기공식을 가진 후 2년만에 1차 본관 건물을 완공했으며 2차 공사가 진행중이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h3>설립취지</h3> <p>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p>	<h3>지역복지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h3>청소년복지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h3>후원회 가입안내.....</h3> <p>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p>
<h3>주요사업내용</h3> <h4>노인복지사업</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h4>재가복지 사업</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h4>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h4> <h4>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h4>	<h3>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h3>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곡당 건립 추진 	<h3>회원</h3> <p>일반회원 - 월 5천원(17주)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p> <p>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p> <h3>후원금 납입방법</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p>☎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p>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소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교육의 질 향상과 인격 형성의 터전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고 금강산 산줄기의 종턱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동해중학교 교정이 우뚝서서 웅장한 위엄의 자태를 자랑하며 모든 꿈과 희망을 머금은 채 젊은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 고승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온천지역에서 내려 3분정도 걸어가니 동해중학교라는 간판이 대로변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3분정도 올라가니 학교 정원에는 별관 신축공사가 한창이라 대형 크레인과 망치소리가 오는 객을 맞아주고 운동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이라 학생들이 축구공을 잡기위해 이리저리 뭉뚱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의 넘치는 기운이 절로 느껴졌다.

창조, 협동, 경애의 교훈을 가슴깊이

21세기는 창조하는 사회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우물찬의 개구리처럼 좁게 생각하지 말고 불가에서 말하는 무념, 무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짝 반짝 빛나는 지혜의 융속음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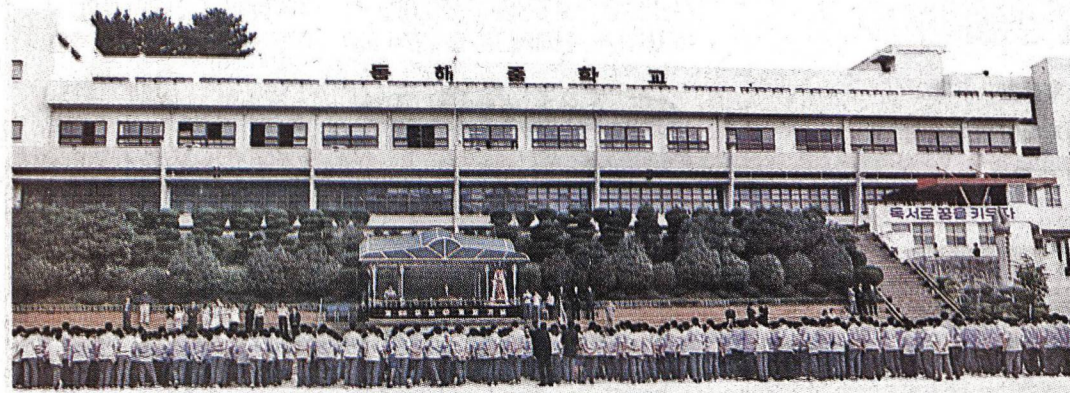


과 관념이 생겨난다. 이러한 창조정신은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며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습득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안위나 욕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타의 정신으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협동심이 발생하게 되고, 산업화, 공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희미해져 가는 현시대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경애의 정신을 겸손의 덕을 겸비하고 있다.

동해중학교는 창조, 협동, 경애의 교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는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슴에는 따뜻한 애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인 보리수와 교화된 장미

동해중학교 교육은 보리수나무다. 보리수는 부처님께서는 이 나무 밑에 앉아 명상 정진하여 도를 깨



양시켜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공부를 잘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창시절 습득한 인간관계와 사회성은 성인으로 성장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넋째 심신을 단련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학생

청소년은 내일의 희망이며, 인재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체력과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은 제2의 성장기, 사춘기시절에서 겪는 방황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확립하고 건강한 체력으로 학문탐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밝은 내일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주위의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 용기와 인내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향상

현시대는 사교육의 증가로 공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의 질을 자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지식의 습득보다 지혜의 습득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지혜는 평생동안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

달은 나무로서 불교에서 매우 신성시하는 나무다. 인도가 원산지이며 가지가 넓게 뻗어서 한 포기가 작은 숲을 형성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넓고 깊은 그늘을 드리워 준다. 이 나무는 원래 필라리수로 불렸는데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 그 이름이 보리수(깨달음을 주는 나무)로 불리게 된 것이다. 교회는 그윽한 향기와 크고 아름다운 꽃에 유비무환을 뜻하는 가시까지 걸쳐 있어 단연 꽃 중의 왕으로 손색이 없다. 민인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위유내강의 고상한 인품까지 지닌 이 꽃은 바로 새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의 정신을 지녔다. 우리도 크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자라서 장차 이 나라의 충성스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생활지표

동해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가지의 생활지표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원대한 꿈과 포부를 지니고 실력을 쌓아가는 학생,

우리숙담에 "노력의 열매는 쓰나 그 결과의 열매는 달다." 라는 속담이 있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번뇌와 상상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꿈을 이룰 수는 없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고 꿈은 이룰 수 없다. 또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고 원대한 꿈만 가지고 생활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들지만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

둘째, 선생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학생

논어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는 스승을 공경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즉 학창시절부터 도덕적, 윤리적 인성과 품성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여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미국처럼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개량된 사회일지라도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지가 첫째조건으로 작용하여 대통령이 되어도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볼 때 윤리적인 문제는 바람직한 성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비추어볼 때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셋째, 학우간에 우애있고 신의를 지키며 자부심이 강한 학생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이다. 학우들간에 서로 우애와 신의를 지키며 서로간에 격려와 용기를 고



기 때문에 삶의 방법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지혜의 추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동해중학교는 획일적이고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활동과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중학교 연혁

- 1967. 3. 25 학교법인 동해학원 발족
- 1967. 11. 27 동해중학교 설립인가
- 1967. 12. 1 초대 황익중 교장 취임
- 1968. 3. 7 제1회 입학식
- 1970. 2. 3 14개 교실 증축
- 1971. 1. 5 교지 '동해, 창간호 발간
- 1974. 1. 23 제1회 졸업식 (288명)
- 1978. 8. 부산시 교육위원회 국사 연구학교 지정
- 1987. 5. 1 제2대 김병준 교장 취임
- 1988. 9. 14 학교법인 동해학원 발족(불교 총지중)
- 1992. 11. 20 2개 특별실 증축
- 1993. 3. 15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교사 시범 발표
- 1994. 9. 14 수성 최병호 이사장 취임
- 1996. 11. 28 교육부 주최 협동교육 개혁 우수 사례 부산광역시 대표
- 1997. 10. 28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수준별 교육과정 시범학교
- 1999. 9. 1 제3대 강경중 교장 취임
- 2000. 7. 14 동래교육청 지정 독서중심학교
- 2001. 1. 19 교실5개 증축 및 고무실 이전
- 2001. 7. 10 학교법인 관음학사로 법인 명칭 변경
- 2002. 2. 3 학교부지 159평 확장
- 2003. 11. 17 별관 신축공사 착공
- 2004. 2. 20 제4회 졸업식 (283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8-25
전화 : (051)556-0281

동해중학교 강경중 교장 인터뷰



강경중 교장

매섭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학교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강경중 교장 선생님을 만나뵙니다.

화를 잘 이룰 때 그 생명체는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총지중의 종립학교로서 동해중학교의 교훈과 자랑거리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 교훈은 창조, 협동, 경애입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동물로 21세기는 창조적인 인간이 요구되는 시대로 창조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할 줄 아는 인간이 될 때 살기좋은 사회가 구현됩니다. 뒷사람은 앞사람을 사랑하고 앞사람은 뒷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도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랑거리로는 위치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금강산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대표되는 동해에 자리잡고 있어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일꾼을 배출하는 곳으로 선생님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질 높은 수업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타고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총지중의 유일한 종립학교로서 동해중학교는 청소년포교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중학교 학교교육정책과 특별활동에 관련하여 불교에 관한 교육 및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는 총지중의 종립학교로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3개의 불교반을 편성하여 지도교사들을 주축으로 사찰순례, 문화체험, 교리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고 교리적 지식이 많은 교사들이 일정한 수업시간을 정해놓고 불교의 기초교리를 수업하고 있으며, 과외활동으로 불교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에 가입하여 4.8봉사활동, 체육활동, 불교문화활동, 불교교사순례, 수련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해중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2001년 2억원을 지원하여 교실 5개를 증축하고, 3억원의 학교부근 부지를 매입하고 별관공사비 2억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금액의 지원금이 한푼 두푼 모인 교도님들의 보시금이라 생각되어 교도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교육청에서도 화장실개축 1억5천, 교사전면 개보수 6억 5천, 별관신축 7억, 소방설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학교의 환경은 천지개벽이란 말을 빌릴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보람된 일과 앞으로 정년퇴임 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학교발전과 학생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데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정년퇴임 후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연에 따라 일을 시작하고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총지중종립학교로서의 운영상의 정책과 현재 운영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일꾼 양성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개발

참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희망인원을 선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어 많은 불교서적을 편찬하고 있으며, 실천 수행하는 불자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와 현재 불교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예가 깊다는 말은 과분한 것 같습니다. 평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포교에 의무를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책을 읽다보니 이는 범위를 넘어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안내자 역할을 하자는 의도에서 유인물을 내었습니다.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동기는 유년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되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시험을 앞두고 수업시간에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의 책을 읽다가 주춧돌 들을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원정 종조님 열반 때 불광동 화장터에서 종조님의 사리를 친견하고 나서 정각사에 입교하여 자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아 불교강좌, 사찰수련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불교교양대학에서 수학하여 불교의 개념과 윤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때는 지식사 청년회, 성화사 청년회의 지도교사를 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불교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도 이제 '비교평가'를 받게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립학교는 주위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어야 하고 환경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재단과 종단간의 주기적인 의사교환으로 대화의 장과 채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유대관계와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육자로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청소년을 교육하시면서 앞으로 청소년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포교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을 청소년포교의 현장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포교는 종단에서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하며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동해중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장선생님의 의견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재단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이 서로 일치단결하여 꿈과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학교를 생각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 단결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